하나님의 비밀과 모든 신들의 실체

사랑이열리는나무

1부.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이땅의 모든 신들의 신체

이 책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보게 하십시오.
구원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실겁니다.

1부 차례

1. 영원한 천국

2. 영원한 지옥

3. 영 생

4. 죽을 때까지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뒤돌아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의 한계와 모든 종교인들의 한계

   1] 자신이 직접 체휼하고 경험한 방식이 아닌 간접적 방식의 설교만 듣는 신앙의 한계

   2] 설교를 통해 평생을 배우고 깨달아 각성하고 결심하고 자긍하는 가운데 죄만 반복되는 근본 이유

5. 설교를 통해 평생을 배우고 깨달아 각성하고 결심하고 자긍하는 가운데 생긴 심각한 기독교인들의 참담한 문제점

6. 세상과 더불어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열매와 결실

7.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님과 가상의 그리스도

8.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신들의 실체

9. 평생을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악한 마귀의 습관을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

10. 기독교와 카톨릭의 예배와 모든 종교들의 예배

11.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기독교와 로마교 예배

12. 기독교의 가짜 구원과 가짜 믿음과 가짜 목자

13. 사단의 실체

14. 인간의 본질과 실체

1. 영원한 천국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 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절대적인 곳이며 완전한 곳이다. 천국에는 전쟁도 없고, 심판도 없고, 타락도 없고, 거짓도 없고 오직 아름답고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아름다움만 있다고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관한 내용이 진실로 성경 말씀의 내용과 일치합니까? 우리가 배우고 믿어온 영원한 천국의 관념은 정말로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설교와 종교적 관념과 상상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진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에 대해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성소에 대해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개념과 막연한 위로의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 실제로 존재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에스겔 9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예루살렘 가운데 행하는 가증한 일로 인해 심판이 명령됩니다.

그리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치라고 하시며,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십니다. (겔 9장3~11) 이 말씀은 매우 두렵습니다. 심판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천국,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시작됩니다.(단 9장 24~27)

천국은 죄도 죽음도 거짓도 다툼도 전쟁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움의 나라로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완벽한 나라요 완전한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온유의 나라요 화평의 나라요 전쟁과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로 인식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부패와 타락과 가증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성경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이 사단 앞에 무너진다는 말씀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원한 천국과 하늘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 줍니다.(겔 9장3~11)

이에 천국은 영원히 완전하며 아름다우며 죄도 죽음도 거짓도 없는 평안과 온유와 화평과 축복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완전함의 영원한 나라라는 막연한 관념의 천국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패와 타락으로 심판을 받는 천국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에스겔 9장 3~11과 다니엘 9장 24~27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천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듯 살다가 다시 일 천년 이후에 하늘에서 전쟁이 생긴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정말로 당

황케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4~10 절의 말씀은 영원한 천국이 존재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훼파할 것이며, 끝은 홍수에 엄몰됨 같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며, 황폐함이 작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관념은 성경말씀과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7~12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계12장7~12)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는 아무 전쟁도 없고, 아무 충돌도 없고, 아무 심판도 죽음도 죄도 전쟁도 없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만 있다는 우리의 천국 관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통한 목자라는 분들에게 배운 인간의 관념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늘의 전쟁을 말합니다.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싸우고 웁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계 12장 7~12)

또한 하늘에서 짐승과 왕들이, 어린 양과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 17장8~14)

하늘나라도 천국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경 말씀은 단순히 아름다운 평화와 기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영원한 천국”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전쟁도 없고, 심판도 없고, 죄도 없고, 훼파도 없고, 타락도 없는 아름답고 완전하고 평화스러운 천국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이 상상하는 천국은 자신의 위로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의 천국이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온유함과 따뜻함과 편안함과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자기 생각의 천국이 아닙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단순한 영원한 평화가 보장된 영원한 천국이 아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운 천국 관념은 반드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성경말씀에 없는 목자들의 설교만을 막연히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진실의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설교의 감동을 좇아 생긴 막연한 위로를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천국의 이미지와 종교적 관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과 중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중심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보다 설교의 감동을 더 좋아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없는 사람의 교훈과 감동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처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짓된 영원한 천국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믿을 것인가? 언제까지 성경에도 없는 귀에 길들여진 감정적 종교적 이론적 관념만을 믿을 것인가?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영원한 천국"의 관념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재검증되어야 합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천국에 관한 진실과 진리도 모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아닌지 이제는 심판이 목전에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도 분별치 못하는 분별력은 거짓과 미혹의 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냉철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계 20장4)

영원한 천국은 없습니다 다만 천 년만 사는 천국은 존재합니다 위에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또한 천 년 이후에 다시 하늘에서 사단에 의해 미혹되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계 20장4~10) 자신의 주장을 위하여 숫자조차도 비유의 대상으로 말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성경 말씀 자체를 멸시합니다 진실을 왜곡합니다 성경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절대로 믿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온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장1~2)

전쟁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존재했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장 7~10)

천 년 이후에 다시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단의 미혹됨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는 이 성경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천 년 이후에 하늘에서 전쟁이 생긴다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영원한 천국이 진정 존재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정말로 진실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질문과 더불어 참석해보세요.

2. 영원한 지옥

우리는 지옥 또한 영원한 천국과 같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벌을 받는다고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내용은 성경 말씀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이 진정 성경의 말씀에 부합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마 26장62~65)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제사장에게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에 네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거짓된 목자들이 후일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너희가 땅

에서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 1장7)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더불어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를 찌르고 죽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도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큰 죄인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에 땅에서 볼 것이라는 내용은 100% 영원한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 21장31)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세리와 창기가 더 악한 당시 제사장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아무리 악한 악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죽인 거짓된 제사장들도 또다시 생명의 기회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벌 받을 세리와 창기와 거짓된 목자들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마 26장62~65)(계 1장7)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벧전 3장20)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유 1장4)

노아 때부터 복종치 않아 물로 멸망한 자들이 베드로가 있었던 시절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 내용들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영벌이 지옥 불에 영원한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내용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결과 평생을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악한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기에 평생을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악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내용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단호하게 부정해야 합니다.

인생이 한 번 인생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장애인들은 단 한 번 사는 인생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는다면 이는 너무나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아닌가요?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이 있으면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인간들에게 단 한 번의 인생으로 영원히 벌

받도록 만드신 지옥이라면 공의와 정의와 신의와 의의 공법의 하나님이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앞세워 사랑의 하나님을 욕보이고 대적이 되는 원수가 아닌지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와 기회가 되시길 빕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따지고 정확하게 보고 분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영원한 지옥을 앞세워 온갖 공갈과 협박과 압제하는 도구와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의 영원한 지옥입니다 협박과 공갈과 압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영원한 지옥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영원한 지옥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대화하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공갈입니다(엡 6장5~9)(시 73장 2~13)

영원한 지옥을 명분으로 압제당하시는 분들이 미국과 한국 기독교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은 영원한 지옥을 앞세우는 자들 앞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압제당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지옥을 앞세워 사랑의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이는 자들을 더 이상은 좇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명분으로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공포와 두려움과 협박과 공갈을 치는 설교들을 더 이상은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냉정하고 철저하게 고민하고 분별하고 살펴야 할 때입니다.

3. 영생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너무 단순하게 배워 왔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의미의 영생으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영생으로 평생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듣고 물어야 합니다. 영생이 정말 단순히 죽은 뒤에 한 장소에 들어가 영원히 머무는 것만을 뜻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배워 온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개념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단순하게 배워 온 천국과 영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 가운데서도 부패와 가증함으로 긍휼 없는 심판과 죽임이 임합니다.(겔 9장3~11)

거룩한 성과 성소가 훼파되고, 끝까지 전쟁과 황폐함이 작정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단 9장24~27)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 즉 사단들과 싸웁니다. 결국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계 12장7~12)

또한 짐승 즉 사단과 어린 양 만왕의 왕께서 싸워 이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계 17장8~14)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천국의 개념을 이제는 냉철하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저 아무 전쟁도 없고, 아무 심판도 없고, 아무 훼파도 없고, 아무 변동도 없고 오직 편안함과 따뜻함과 온유함과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만 존재되는 영원한 장소입니까?

성경은 예루살렘과 성소의 심판을 말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성과 성소의 훼파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늘의 전쟁을 말합니다. 성경은 어린 양과 짐승의 싸움을 말합니다. 이는 영생의 뜻이 단순히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생은 성경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 어긋나는 하늘의 심판과 전쟁과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

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마 26장62~65)(막 14장62)

그리스도께서 거짓된 제사장들에게 심문받으실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 땅에서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 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 1장7)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계 1장7)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자들도 심판 날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땅에서 보게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벌 받는다는 영벌은 거짓말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마 16장27~28)(막 9장1)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중에 심판의 날에 너희도 내가 왕권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에 땅에서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제자들 중에도 심판의 날에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날에 땅에서 볼 것이라는 말씀도, 인간이 거듭 태어난 것이 영생의 의미라고 말씀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 21장31)

또 그리스도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이란 내용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마 21장 31)

베드로전서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벧전 3장19~20)

창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노아의 방주를 믿지 않고 물로 심판을 받은 자들이 다시 거듭 태어났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과 생명의 기회를 우리가 너무 단순하고 좁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약속 안에서 생명이 지속적으로 거듭 태어나 유지되고 이어진다는 의미의 영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좇아난 인식과 배움에 대한 큰 문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어

떤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끝없이 머문다는 배움의 결과는 지옥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거듭 태어남의 영생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강력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계 21장10~21)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프랑스인 입니까? 아니면 영국인입니까? 그도 아니면 유럽 사람입니까? 단 한 번의 인생만으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간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당신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위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오직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뺀 이방인들의 천국 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부정한 지금의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은 하늘나라

를 기반으로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유럽 사람이 독일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100% 성경 말씀과 완전히 상충되는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의 그 예가 없는 모든 간증은 거짓이거나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과 유럽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문조차 없는데 천국을 체험하고 왔다고요? 너무나 황당하고 번번한 거짓 간증들이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당신들의 전신인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구원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당신들의 유일한 구원의 열쇠입니다 부득이 온 땅에 저의 거듭 태어남의 근거를,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들이 거듭 태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보이는 것은 심판의 날에 맞추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에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찾도록 인도하기 위함에 이 하나님의 거듭 태어남의 영생의 비밀을 온 땅에 밝히는 것입니다 이 거듭 태어남의 말씀은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름을 찾도록 인도하기 위함에 말씀으로 저를 밝히는 것입니다.(말라기 3장1~4) (마태복음 12장17~18) (요한계시록 11장3~4)(스가랴 4장3~14절)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계 20장 4~5)

이 말씀의 내용에도 천년 밖에는 살지 못하는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7절 말씀에 사단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두었다가 일 천년 이후에 다시금 놓아 주는데 하물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뜻 또한 천년 동안 지옥에 있는 자들도 천년 이후에는 다시금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암시가 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찌르고 죽인 잔인무도한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들도 영원한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에 땅에서 볼 것이라는 이 말씀들 또한 영생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머문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이 지속된다는 의미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거듭 태어나 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 21장31)

이제 우리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말합니다. 이사야 40장3절의 말씀을 좇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을 좇아 세례 요한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왔음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 17장11~13)

또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셨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1장 9~14)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세례 요한으로 왔는지 예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은 단 한 번 육체로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시대를 넘어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이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난 뒤에는 한 장소(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머문다는 방식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는 절대로 성경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다시 나타나며, 어떻게 살아오고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멜기세덱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조상의 아비인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창 14장18~20)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해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십 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히 7장1~10)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그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라는 뜻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문의 논지에서는 이 내용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이심을 명명백백하게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로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표현은 보통 감히 누구에게도 어떠한 목자도 어떠한 선지자들에게도 절대로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7~10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멜기세덱이 단순한 한 인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존재입니까? **만일 멜기세덱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보다 더 높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로서 어떠한 선지자들과 비교도 안 된다는 이 말씀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기존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사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들은 영생과 생명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성경 말씀과 완전 대치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다시금 점검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13~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뒤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세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냈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라고 말합니다.(민 11장12) 모세가 모든 조상의 아비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자녀처럼 여기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는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쓴 시편에서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아브라함임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시 105장42)

본문의 논지에서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의 역사가 시대를 넘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의 일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시대와 세대에서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지속되었고 어떻게 성경 말씀의 내용이 성취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모세로 태어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의 역사는 한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생은 단순히 죽은 뒤 어느 장소에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생명의 이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해야 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보여 줍니다.(사 23장1~18)(겔 28장1~19)에는 또한 두로 왕에게 찬미를 불러 과거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처럼 거룩한 말씀(성령)으로 과거의 아브라함임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계 3장7)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

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사 22장22)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워 힘 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사 22장20~23)

하나님께서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워 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정권을 그 손에 맡기고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집에 열쇠 즉 천국 열쇠를 준다는 엘리아김이 과연 누구이길래? 다윗의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엘리아김이 다윗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 내용은 히브리서 7장1~3절의 말씀을 통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내용과 명확하게 흡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아김이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신비하고 자세하고 명확한 온 인류가 놀라울 만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뜻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마 17장11~13, 마 11장9~14)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로,
(창 14장18~20, 히 7장1~3, 5장7~10)

아브라함이 모세로, (창 15장13~15, 민 11장12, 시 105장42)

다윗이 엘리아김으로 (사 22장20~23) **거듭 태어나 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성경말씀의 내용을 기독교와 로마교가 왜 부인하고 부정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 오는 하나님의 목자의 명분을 부정해야만이 평생을 종교의 명분을 앞세워 도둑질의 예배를 위한 거짓된 목자들을 합리화하기 위함에 종교들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종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영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심이시라.(막 12장26~27)

이 성경 말씀은 당신의 구원과 생명에 관한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한 장소(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머문다는 단순한 개념 자체가 아님을 이 성경 말씀은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은혜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대와 세대를 거쳐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듭 태어나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치를 당시에 모세의 가시나무의 떨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아야"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란 책을 통해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놀라워한 것입니다.(모세의 가시나무떨기 책자 참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를 부정한 자라고 성경 말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 장애인들이 왜 태어났는지 아세요? 장애인이 태어나는 이치도 모르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하나님의 참된 목자가 맞을까요? 여러분이 장애인들이 왜 태어나고, 낙태한 자가 왜 태어나는지, 또 지옥을 만드신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감히 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크고도 크시고 깊고도 깊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탄하고 놀라고 탄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강의를 통해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원본이 이스라엘 언어가 아닌 이방인 로마의 언어인 헬라어로 변경된 자체가 이해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 자체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만 들어가는 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될 수 없는 로마인들이 왜 신약의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었을까요? 원본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는 과정에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 바르게 옮겨졌을까요? 우리는 구절마다 서로 부딪치고 반대되는 신약을 보면서 면밀하게 살피고 의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 27장46)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막 15장34)

위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아래의 누가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고 다릅니다 부활하여,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분이 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원망한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반대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도 신뢰하시는 말씀입니다.(눅 23장46) 여러분 둘 중 무엇이 맞을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눅 23장46)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마 26장31~32)

온 인류가 놀라워할 변개되고 삭제된 성경이 곧 출시됩니다.

4. 죽을 때까지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뒤돌아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의 한계와 모든 종교인들의 한계

1] 자신이 직접 체휼하고 경험한 방식이 아닌 간접적 방식의 설교만 듣는 신앙의 한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교의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은 사람을 결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과 감동과 다짐만으로는 죄를 반복하는 인간의 악한 습관을 죽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웁니다. 감동을 받습니다.“이제는 달라지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죄로 돌아갑니다. 같은 정욕, 같은 혈기, 같은 교만, 같은 탐욕, 같은 미움, 같은 거짓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감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신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이 죄를 이기는 성령과 은사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한 인간의 혈기와 의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

다. 자신이 직접 체휼하고 경험한 것도 아닌 이론이나 다를 바 없는 다른 제삼자의 경험과 교훈과 감동을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배우고 느끼는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의 진리로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교훈을 듣고 감정으로 느낀 간접적인 신앙은 항상 머리와 감정에만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고 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감동입니다.(롬 16장17~18) 오늘날 모든 종교와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이 직접 체휼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방식이 아닌 간접적 다른 사람의 경험과 교훈과 감동을 좇아난 방식의 설교로 평생을 듣기만 하는 신앙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약간의 사회적 봉사와 구제와 다를 바 없는 사랑을 내기도 하지만 이것을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모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같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며 결심합니다 이 결과 당신은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직접 체휼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반복되는 죄 앞에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경험을 내 머리로 배우고, 내 감정으로 느낀 간접적 신앙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죄를 반복하는 인간의 악한 습관을 죽이는 강력한 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의 진리가 아니기에 죄만 반복할 수밖

에 없는 인간의 한계와 육체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간접적인 교훈과 감동으로 누구나 듣고 누구나 감동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과 이 교훈은 직접 자신이 체휼하지 않는 이론적인 가치이기에 머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감정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이기는 경험을 직접 체휼하여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 2장3~12)

살후 2장3~12절의 말씀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짓과 속임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교훈과 감동을 끌어들여 마치 자신이 직접 체휼하고 경험한 교훈과 감동으로 감동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은혜롭게 들린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의 진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도 아닙니다. 감정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은 말과 이론만 앞세운 교훈과 감동이 아닙니다 설교의 위로와 위안이 아닙니다 진리의 기준은 죄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19절 말씀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 설교와 그 말이 아무리 좋고 감동적이라고 해도 사랑과 연합한 사랑의 진리가 아니기에 뒤돌아서면 쉬 사라지고 마는 누룩과 같은 감동이라는 것입니다.(호 7장2~4)

말만 앞세운 도덕적 책망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죄에서 해방되는 사랑이 역사하는 사랑의 진리가 아닙니다. 설교들의 교훈과 감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없애는 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의 진리인지 보아야 합니다.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각성과 다짐과 결심만 일으키는 사람의 교훈과 설교의 감동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마 16장11~12)

감동의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죄만 반복하는 죄인의 길에서, 반복되는 죄에서 해방시키는지 보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장3)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 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예하였더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렘 23장17~22)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약 5장19~20)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말 2장6)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

이라.(벧전 4장1~2)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신의 능력을 얻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말은 잠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사람들의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애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금방이라도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들의 모든 이상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아난 참된 진리입니까?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 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호 7장2~4)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잠 7장21~22)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잠 5장3~6)(시 55장19~22)

고린도후서 7장10절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애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세상 근심은 사망(심판)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서와 같이 자신만의 축복(만사형통)을 바라는 지라 거듭남의 그리스도의 회개를 이룰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종교들의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 7장10)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히 12장16~17)

세상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는 설교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유도하는 달콤한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문제나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직 죄에서 돌이켜 거듭남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와 사랑의 진리를 얻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갈 5장22~24)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는 설교가 참되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

혀야 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거듭남의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야 합니다.(벧후 2장1~3) 호세아는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호 7장2~4)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롭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감미롭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듯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축복만을 위한 정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와 지능으로 배우고 익히고 느끼는 사람의 지식, 이론, 감동, 상식을 포장하고 과장한 설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상식과 교훈과 감동을 포장하고 과장한 사람의 설교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합되는, 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의 진리입니다.(딛 1장10~16)(롬 2장17~24)

성령은 머리와 지능으로 배워 익히는 지식적 가치가 아닙니다. 성령은 세상 지혜와 사람의 상식과 학문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신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신의 이상과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목자와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인 성경말씀이 중심한 기준만이 진리의 목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골 2장2~9)(골 2장20~23)(갈 4장9~11)

요한1서에서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

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고 했습니다. (요1 4장1~6)

그러므로 설교자의 말만 듣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설교가 성경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능력으로 선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한 이들의 해석과 풀이의 설교가 평생을 각성과 다짐과 결심만 일으킬 뿐 평생을 죄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교훈과 감동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감동은 있어도,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말과 이론의 감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요1 4장7~16)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사랑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약 1장22~26) 그러므로 듣기만 하도록 인도하는 말과 이론만 앞세운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죄만 낳을 뿐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와 교훈을 바탕으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만 하도록 인도하는 감동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휼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좇아 선과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억지에 억지로 거짓으로 거짓으로 해

석하고 풀이하여 성경말씀 자체를 왜곡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평생을 달라질 것 없는 다른 사람들의 교훈과 감동을 앞세운 감성팔이 설교 속에 믿음은 평생을 죄만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로 점점 양심(영)이 죽어가는 까닭으로 점점 갈팝하고 공허해지는 결과만 낳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풍성한 연보가 존재하지 않는 지치고 찌들어가는 세상 인생들과 다를 바 없는 육신의 믿음들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 3장16~17)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후 10장5~6)

진리는 말과 이론과 지식과 교훈과 감동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과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좇아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난 능력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죄를 없애는 능력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고후 11장3~4)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갈 1장6~7)(골 2장2~9)(갈 4장9~11)(딤전 1장3~7)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사9장15~17)(롬 16장17~20)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케 할 것만 보았도다(애 2장14)(삼상 12장21)

2] 설교를 통해 평생을 배우고 깨달아 각성하고 결심하고 자긍하는 가운데 죄만 반복되는 근본 이유

모든 성경의 목적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목자도 안식일도 은사도 능력도 진리도 성령도 오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하심에 존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난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범죄하지 않는 자녀가 되었는가 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난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선과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교훈을 간접적으로 듣고 감동받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신앙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자신의 혈기, 자신의 의욕, 자신의 확신, 자신의 각성, 자신의 다짐, 자신의 자긍에만 기대하도록 인도하는 **오늘날의 모든 종교들의 설교와 기독교의 설교들의 한계는 명확하게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지닌 인간의 악한 죄의 습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학습과 교육 방식에 기대어 머리와 지능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자기를 의지해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다른 사람의 교훈과 감동의 한

계는 모든 종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구조와 문제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많은 세월 속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여 각성과 다짐과 결심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설교로 인하여 하나같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절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머리와 지능을 의지해 배우고 익히고 느끼고 깨달아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이 인간의 반복되는 학습과 교육과 교훈은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자신을 의지한 기준을 절대화하는 습관을 모든 인간들에게 길들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인간 교훈과 인본주의 사상의 한계와 폐단입니다.

자신을 의지해 의욕하고 확증하고 자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습관에 모든 사람들이 인간 교육 방식과 인간의 학습방식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습관 속에 매우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왔기에, 오늘날 말과 이론의 교훈과 감동만을 앞세운 설교들을 아무런 검증도 여과도 거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인간학문의 습득과 이해의 과정에서 발생된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습관으로 인한 결과는 비참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설교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항상 자신의 축복과 위로와 위안만을 얻고자 하는 육신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월 속에 반복되는 설교에 따라 모든 성도들은 점점 자신을 더욱 의지해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자긍한 결과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점점 절대화되어 가는 습관이 점점 커지고 극대화되어 갑니다 기독교인들의 설교로 인하여 자신을 의지한 의욕과 확신과 자긍만을 일으키는 감동으로 난 결과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대신, 오직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자신의 의욕과 확신과 자긍만 일으키는 습관으로 자신의 주장이 말씀화가 되고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화가 되고 자신의 기준인 그리스도인 양 하는 태도는 점점 자신을 절대화한 습관을 넘어 자신이 하나님화가 되어 버린 줄도 모르는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 의지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양 하는 형태가 오늘날 모든 종교와 기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감성팔이 설교의 감동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는 사람의 교훈과 감동인줄도 모르는 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절대화되고 믿음화가 되고 신격화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이 가장 큰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된 줄도 모르는 소경이 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주장이 말씀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화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듣고 감동받는 신앙은 이론이나 다를 바 없는 간접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체험, 다른 사람의 교훈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습관에 이끌린 바 됩니다.

자기의 각성, 자기의 다짐, 자기의 결심, 자기의 의욕, 자기의 확신, 자기의 자긍을 버리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날 말만 앞세운 설교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에게 계속 감동으로 결심하게 만들고, 다짐하게 만들고, 자기 의욕을 불태우게 만듭니다. 이 반복되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습관에 점점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점점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집니다. 자기의 판단이 말씀의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자기의 주장이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자기의 확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겨집니다 자기의 주장이 성령의 역사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이 설교 중심이 부른 자기 중심이 믿음화되고, 인간이 신격화되는 종교의 참담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와 지능으로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교육 방식은 세상과 인간의 방식입니다. 지식을 배우고, 이론을 익히고, 감동을 받고, 결심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공통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의 진리를 얻는 방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사와 인간사의 학습 방식이요 모든 이단들의 설교 방식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2장 4~14)

문제는 종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식, 인간의 도덕, 인간의 감동을 말씀과 진리와 은혜로 포장한

다는 데 있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진리입니다. 표현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 안의 실체는 사람의 주장, 사람의 해석, 사람의 철학, 사람의 지식, 사람의 도덕입니다. 성경 구절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이 설교가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회개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교훈일 뿐이요 감동만 부풀리는 누룩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부드러운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따뜻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이라고 해서 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입술은 기름보다 부드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일 수 있고, 그 말은 미끄러워도 실상은 뽑힌 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그 끝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했습니다.(잠 5장3~6) 그러므로 듣기 좋은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마음을 녹이는 감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좋은 말과 아첨하는 부드러운 말과 공교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부드러운 설교도 유창한 말솜씨도 설교의 감동도 감동의 눈물도 아닙니다. 그 설교가 죄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를 받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거듭남의 회개로 이끄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도록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참된 진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교훈과 감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사람의 의욕을 불태우는 설교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성도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참된 진리는 세상에 속한 정욕을 버리고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진리의 능력으로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아첨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며,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는 능력을 좇아 선과 의의 백성으로 인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구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결심합니다. 그러나 결심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눈물은 곧 회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잠시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은 사람을 잠시 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은 사람을 잠

시 결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반복되는 악한 습관을 죽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설교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거듭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감동에 없습니다.
정욕과 죄를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사람의 결심에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신의 능력입니다.

나는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데 왜 죄만 반복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면서 왜 정욕과 죄를 반복하는 세속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듣는 설교는 세상 근심을 위로해 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인도하는 말씀입니까?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죄를 미워하고, 악한 습관을 죽이며, 선과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설교에 감동받았다고 해서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악한 습관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은 순간적으로 결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동과 결심만으로는 인간 안에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죽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욕, 자기 확신, 자기 자긍을 의지합니다. 설교를 듣고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세웁니다.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축복과 형통만을 구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완고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중심적이 되며,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 매우 완고하고, 겉으로 인자한 척 하나 실제로는 매우 이기적이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나 실제로는 자기 주장이 절대적이고, 겉으로는 선한 척 하나 매우 교활한 악한 이중성과 처세술의 믿음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의 감동과 자기 확신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믿음들의 열매입니다. 참된 진리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자기 주장과 자기 해석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궤계요 마귀의 궤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

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자기 의를 꺾으며, 악한 습관을 죽이고, 선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죽고 있는가, 내 안에 이기심과 완고함과 거짓과 교활함이 꺾이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행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진리는 말의 감동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진리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신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사람의 교훈은 결심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습관을 죽이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로만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의욕과 자기 자긍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높이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됩니다. 진짜 믿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꺾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는 사람의 주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선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듣고 감동받는 말이 아니라, 죄를 죽이고 선을 행하게 하는 살아 있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5. 설교를 통해 평생을 배우고 깨달아 각성하고 결심하고 자긍하는 가운데 생긴 심각한 기독교인들의 참담한 문제점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왜 쉽게 변질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과 종교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중심의 기준과 판단과 생각을 믿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입맛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원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리스도의 믿음인 양 말씀 중심인 양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육체의 욕구를 좇아난 습관을 좇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즐거운 것, 더 편한 것, 더 유익한 것, 더 만족스러운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이익과 욕구와 계획을 좇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매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이론만 앞세운 육체의 악한 본질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오늘날 모든 종교와 기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의욕과 명분만 존재되는 신앙일 뿐 실제로는 세속을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과 같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 믿는 모든 종교인들과 기

독교인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수 없는 정욕과 죄만 쌓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과 육에 속한 믿음이기에 세상 인들처럼 하나같이 세상의 영과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세상적 욕망과 육신적 삶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한 아름다운 사랑의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반복되는 죄와 육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바른 기준을 좇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와 자기 욕구를 따라 계산하고 판단하는 교활하고 간사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싶고, 자기 감정이 만족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은 것이 육체를 지닌 인간의 욕구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자기 이익을 계산하려 하지만, 양심은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정의와 긍휼을 따르도록 일깨웁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두 마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에 따라난 욕구와 양심을 따라난 정의가 서로 부딪칩니다 양심을 따라 선을 이룰 것인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죄를 범할 것인가. 생각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려 하고, 양심은 상대를 배례하고 이해하는 겸손함을 갖습니다 생각은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이익을 앞세우려 하고,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아니라 육체의 욕구를 좇아 사는 종교인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판단을 본질적으로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적당한 도덕과 윤리, 그럴듯한 철학과 주장, 과다한 의미 부여와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질에서 비롯된 습관입니다. 이 악한 습관을 좇아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믿지 않는 세상인들처럼 자기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며 함부로 하며 꼬치꼬치 따지고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기에게는 어릴 때부터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관대함을 갖지만 상대에게는 이해조차도 하지 않는 칼날 같은 기준을 들이댑니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반복되어 온 자기 중심의 인간들의 악한 습관입니다.

오늘날 육신을 좇아난 기독교인들과 종교인들의 악한 습관은 자기의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점점 무디고 점점 경히 여깁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습관 속에 점점 죄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점점 반복되는 죄 앞에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기준이 점점 자연스러워져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한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기에 모든 기독교인과 종교인들이 자기 판단이 절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항상 옳다고 여길 필요성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생각은 절대적이 됩니다.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자기 주장이 진리가 됩니다.

의견은 더 좋은 지혜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견해를 모아서 더 합리적이고 더 온전한 길을 찾기 위한 것이 의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자기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를 미워하고,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투고 화를 냅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자기중심의 주장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뜻을 따라오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상대를 적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사고와 기독교인들과 모든 종교인들의 믿음의 형태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 사람을 쉽게 적대시합니까? 그 안에 육체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자기중심의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인간의 악한 본질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낮추고, 자기 옳음을 세우기 위해 상대를 함부로 합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인간의 본질은 참 이기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한 것만 기억하고 반대로 상대에 대해서는 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상대가 잘한 아홉 가지는 보지 않고, 못한 것 한 가지를 전부인 양 눈덩이처럼 크게 보며, 반대로 자신의 아홉 가지 잘못은 보지 않고, 자신이 잘한 한 가지가 전부인 양 확대해석하고 부풀려 기억하는 연고로 과거의 지난 추억을 서로 말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에 따라 사실과 달리 제각각의 주장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잘한 것만 기억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만 기억하는 매우 이기적인 기억력이 자신을 합리화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이는 상대는 낮추고 자신의 옳다 함을 합리화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절대화하기 위한 교만된 생각이 만들어낸 이기적인 본질적 습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의 문제입니다.

양심보다 욕구를 따르고, 선보다 자기 이익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는 자신을 의지해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혈기와 의욕을 부풀리는 기독교의 모든 설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또한 모든 종교들의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질과 습관이 오히려 진리를 가르친다는 설교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는 충동,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습관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이해관계 속에서도 항상 감정이 요동치며 자기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대를 함부로 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 발상과 이기적 생각이 중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악한 인간의 생각을 좇아난 본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충동과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는 인간의 습관이 오늘날 혈기와 의욕만을 불태우는 설교로 인한 참담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목자와 배우는 성도들이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으로 길들여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이기

적일 뿐 아니라 절대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신격화된 채 살아온 믿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회개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뒤돌아 또 죄를 반복합니다. 후회한다고 하면서도 뒤돌아 또 자신의 이해관계만 챙기는 욕구만을 따라갑니다. 결심한다고 하면서도 오직 다시 자기 이익과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을 찾습니다. 왜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날 수 없는지 왜 자신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믿음이 아닌지 이제는 냉철하게 따져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근본도 본질도 욕구도 습관도 달라질 수 없는 육체의 한계에서 혈기와 의욕만을 부추기는 설교는 마치 누룩에 부풀려 잠시 부풀렸다가 꺼지고 마는 밀가루 반죽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육에 속한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욕과 죄를 더욱 부추기는 육신적 세상적 감정적 삶으로 인도하는 누룩과 같은 미혹의 설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육에 속한 도덕과 윤리로 적당히 섞어 과다한 의미부여로 자신의 삶과 행위를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목자와 성도들의 형태이기에 죄에서 해방되고 거듭날 수도 없는 인간의 악한 습관에 의해서 평생을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참담한 기독교와 로마교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이 결과는 다시 말하자면 로마교와 기독교는 겨자씨만 한 믿음의 열매와 증거

를 나타낼 수 없는 종교의 한계요 곧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말만 앞세운 설교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자기 이익과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을 좇아난 신앙들이기에 자신의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끼기보다 오히려 이해관계만을 중시하는 습관은 자신의 죄 앞에서 당당하게 합리화하고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모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내 삶에서 왜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정욕이 내 믿음에서 왜 반복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근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세상적 욕망과 정욕과 욕심을 종교적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포장합니다.

황당한 의미부여와 과다한 동기부여를 앞세워 자신의 죄를 더욱 합리화하고 더욱 키워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로마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평생을 이해관계 속에서 죄를 반복하면서도, 뒤돌아 하나마나한 후회와 반성 속에 결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성과 결심은 언제나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유대교인들처럼 종교인에 불과한 자신들이 마치 자신의 모든 이상과 목숨까지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믿음으로 오직 자신만의 축복과 만사형통만을 바라는 기독교인과 로마교인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가장 큰 원수와 대적자는 창세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한 종교인들입니다 과거 유대교인들처럼 로마교인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정한 종교인들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큰 대적자고 원수인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마치 범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양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인 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들이 마귀요 사단의 사자인 줄을 모른 채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요1 3장5~10)(롬 6장16~18)(고후 12장7)

평생을 자신만의 축복과 정욕만을 좇는 자들이 마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양 그리스도인인 양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습니다.(요1 3장16)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롬 14장7)

육신의 믿음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만을 위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참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반성하고 각성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육체의 욕구를 따라 이해관계만 따지는 믿음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아난 아름다운 사랑의 믿음으로 거듭나고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평생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한다고 말한다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성하고 돌아서서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 반성이 진정 거듭나고 달라

질 수 있습니까? 각성하고 뒤돌아 또 자기 욕구를 따라간다면, 죄만 반복한다면 그 각성과 눈물이 무슨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기독교인과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종교인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신의 사랑을 좇아난 신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인자한 척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할 수도 있습니다. 상냥한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타나는 변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활한 처세술일 뿐입니다. 이중성과 위선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치 사회적 봉사와 구제로 여겨 버리는 기독교인들과 로마교인들의 선과 의의 형태는 모든 종교들도 세상 기업인들도 세상인들도 누구나 다 하는 사회적 봉사와 구제입니다 자신들의 기업과 종교를 자랑하고 홍보하기 위함에 누구나 다 하는 사회적 봉사와 구제를 마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양 여기고 자부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제와 봉사가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보잘것없는 생색과 위선에 불과한 구제와 봉사가 아닌지 이제는 냉철하게 따져 보아야 할 때입니다.(마 5장46~48)

이것은 참된 사랑과 자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워 생색과 위선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양심을 따라 판단하는가, 아니면 내 이익과 감정을 따라 판단하는가? 나는 회개한다고 말하면서도 같은 죄

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신앙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더 교묘하게 나를 합리화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를 따라 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분별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과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판단이 절대화가 되어 있는 습관 속에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 감정이 기준 하는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내 욕구를 믿음으로 포장하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믿음은 아무리 종교적 언어와 명분으로 합리화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는 믿음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중심을 깨뜨립니다.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죽어가는 양심을 살립니다.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선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욕구와 자기 이익을 따라 판단하는 습관 속에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말만 앞세운 설교로는 절대로 이 인간의 악한 본질을 깨뜨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중심의 기준과 판단을 깨뜨리고,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며,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 선과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과 이론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실체로서 삶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6. 세상과 더불어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열매와 결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속한 욕구와 이상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행복, 성공, 가정의 평안, 물질의 축복,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형통과 같은 세상적 바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결합한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의 사고와 기준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명과 신앙과 진리라는 명분에 가려져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생활 방식이나 사용하는 말, 생각하는 인식의 상태나 지식과 이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구를 벗어나지 못한 본질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만족할 수 없는 육체의 욕구를 따라 자신의 희망과 행복과 성공을 꿈꿉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면 기뻐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분노하며 불평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고,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마저 흔들립니다.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아난 양심(영)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욕심과 희망과 성공을 바라며, 말의 감동을 통해 자기의 의욕과 자긍만 일으키는 감정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는 사랑의 열매와 증거가 따르지 않습니다. 평생 말로만 가르치고, 평생 듣기만 하는 신앙이 될 뿐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인자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상냥한 척하고, 선한 척합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적 믿음이고, 이론적 믿음이며, 감정적 믿음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좇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된 믿음은 신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 주장을 세우고,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을 절대화합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명분만 덧씌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자들의 설교를 통한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감동은 사람을 잠시 반성하게 하고, 의욕을 일으키며, 다시 결심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죄를 끊게 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한 습관을 죽이지 못하며, 사람을 실제로 거듭나고 죄에서 해방되도록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감동과 은혜는 항상 이해관계 속에 죄만 반복하는 각성과 다짐과 결심만 일으키는 설교의 교훈과 감동이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는 양심 안에서 얻게 되는 양심의 양식이요 신의 진리의 능력이요 양심 안

에서 역사하는 신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화되기 위함에 존재되는 말씀이요 은사요 능력이요 성령입니다 따라서 평생을 죄만 반복하는 기독교인들의 성령과 은사와 방언은 다 일축하여 다 거짓이요 억지요 하나님을 가장한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는 은사와 방언과 성령이며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아 본과 귀감이 되기는커녕 평생을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요 8장34), 겨자씨만한 믿음의 증거와 열매도 없는 거짓된 구원이요 거짓된 성령이요 거짓된 은사요 거짓된 방언입니다 죽을 때까지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의 악한 죄의 습관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요 사단의 사자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사람의 헛된 감동만을 좇아난 사람의 결과입니다.(마 17장20)

세상과 더불어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신들의 변질과 이단과 거짓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위하여 자신이 배운 학문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육체의 욕구를 좇아난 자신의 사고와 판단과 기준에 치우쳐 제멋대로 풀이한 자신의 변명이 마치 진리인 양 여기는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와 설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사 9장 14~17)

빛과 소금처럼 본과 귀감은커녕 평생을 말로만 가르치는 자들과 평생을 듣기만 하는 자신들의 이론적 가치를 말씀화하고 지식적 가치를 신격화하여 자신의 성공과 행복과 지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인 연고로 이들에게는 사실 성경 말씀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말씀(성경)과는 오히려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요 세상에 속한 성공과 행복과 만사형통과 더불어 구원과 천국도 가고 싶은 족할 수 없는 육체의 욕구를 좇아난 육신의 믿음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물질과 겸하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니 자신의 욕구를 좇아난 기분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의 믿음이요 욕구를 좇아난 감동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의욕을 좇아 항상 죄짓고 후회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삶의 연속이다 자신의 기준과 잣대가 가장 절대적인 믿음이다 보니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는 반대로 자신의 욕구를 좇아난 정욕과 욕심만을 구하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망령된 기도인지조차 모른 채 끊임없이 족할 수 없는 자신의 욕심과 바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신앙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요 하인일 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자기 욕구가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중심, 자신의 사고, 자신의 감정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만들어낸 가상의 깨달음 속에서 느끼는 희열과 환희는 요동치는 감정에서 솟아난 감동일 뿐입니다. 그것은 신의 은혜도 아니며, 신의 감

동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경지나 깨달음을 앞세우는 모든 종교의 이상도 결국은 인간이 감정으로 느끼고 깨닫는 감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지와 도통과 이상은 인간의 한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만들어낸 생각 속의 깨달음, 자신의 희망과 이상을 위해 감정이 만들어낸 망상 속의 희열, 자신의 자아도취와 교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환희,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감동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구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감정이 만들어낸 순간의 만족일 뿐이며, 선한 양심에 부합하지 않는 망상 속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 세상에 속한 문제들, 곧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사람의 감동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감정이 만들어낸 감동이며, 욕심과 바람대로 이루지 못한 답답함과 괴로움을 위로받고, 위안과 희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망상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평생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 죄를 반복하면서도,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며, 자신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처럼 착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진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요1 3장5~10)

모든 성도들이 죄를 반복하는 근본 이유는 단순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반복하는 근본 이유는 육체의 정욕과 욕구를 따라 살며,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삶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악한 인간의 습관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한다 해도 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코 죄에서 해방되는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의 감동만으로는 인간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린다 해도, 겨자씨만 한 믿음의 능력과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

습니다.

모든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과 육에 속한 육체의 정욕과 욕구를 좇아 사는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살아가기에 욕심 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심을 따라 끊임없이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반복되는 것은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평생 듣기만 하는 감동 속에서 셀 수 없이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설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목사들의 설교로 거듭나는 인간은 사실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목사들의 감동팔이 설교를 들으며 깨닫고,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했음에도 겨자씨만 한 믿음의 능력과 증거와 열매가 나타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명백히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은 자신의 욕구를 좇아 죄를 반복하는 자가 죄인이며, 마귀의 자식이며, 사단의 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이 바로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반복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자기 감정의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며,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신앙을 참된 믿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요 8장44)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요1 3장8~10)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12장7)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롬 11장32)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장5)

7.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님과 가상의 그리스도

평생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좇아 죄만 반복하면서도, 마치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과 사랑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결국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위선과 생색으로 나타나며, 결코 빛과 소금처럼 본과 귀감이 될 수 없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과 교활한 처세술로 사람을 속이는 신앙이 대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상냥한 척, 겸손한 척, 인자한 척,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 속에서 언제나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앞세우는 매우 계산적이고 간사하고 교활하며, 소심하고 인색한 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말의 설교로 죄가 반복되는 악한 습관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혹은 이미 거듭난 것처럼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세속을 떠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받은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기독교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사실 겨자씨만 한 믿음도 없으면서 말만 유창한 자들이 거짓된 성령과 은사와 능력과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이 성령을 받은 양, 능력을 받은 양, 은사를 받은 양 하며 목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탓에 온갖 거짓과 이단과 변질과 자기 주장과 자기 철학으로 점점 부패하고, 점점 타락하며, 점점 썩어가는 종교들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속여 온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들의 참담한 결과를 보십시오. 종교들은 점점 부패하고, 점점 타락하고, 점점 썩을 대로 썩어 온 탓에 온갖 악취가 진동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앞세워 명분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듣기 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현실은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행함과 실천으로 보여주며 빛과 소금처럼 본과 귀감이 되기는커녕, 말과 위선과 생색으로 보기 좋고 듣기 좋게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위선과 생색에 불과한 행함을 그럴듯한 변명으로 포장하여,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실체이며, 종교들이 말하는 신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피 위에 세워지고 만들어진 종교들이 세상을 주관해 온 결과로 오늘날 이 세대는 온갖 부패와 타락과 불법과 거짓과 악행 속에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마야 문명 등 인류의 대부분의 문명들이 하나같이 철저하게 종교 통치로 이루어진 문명들이었음을 발견되는 많은 유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종교가 과거의 왕권과 권력들이 절대 권력과 절대 복종이라는 종교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악용했던 인간의 대표적인 절대 권력을 위한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회교도, 힌두교도,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왜 공통적으로 왕가에서 나왔을까요? 이 권력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권력에
의해 전파된 것이 오늘날 모든 종교들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정권의 정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복종과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인류는 오랜 세월 속에 종교를 절대적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것입니다 절대복종과 절대 권력을 위한 종교 통치는 통치자는 신이요 신의 대리인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백성들 앞에 군림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이 역사하여 세운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신격화하여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함에 만들어진 종교들이기에 죄만 반복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인간들이 만든 종교와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날 모든 종교들이기에 죄만 반복하는 육체의 악한 인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명분과 겉모양은 신을 섬기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육체의 욕구와 욕심을 위하여 신을 섬기는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결국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믿음이며,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신격화할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겨자씨만 한 믿음의 열매와, 증거를 지닌 믿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곧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과거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마야 문명 등 인류의 대부분의 문명들이 하나같이 종교 통치로 이루어진 문명들이었다는 사실은 발견되는 많은 유물을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습

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믿는 사고방식의 설교는 이미 교회 안에 절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의 공통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요구대로, 자기 입맛에 따라 하나님을 아예 만들어 믿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 또한 제목과 명분만 하나님을 믿는 것일 뿐, 실제로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이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요구와 자기 감정과 상상에 따라 하나님을 자신이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필요조차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모든 죄와 정욕과 욕심을 다 묵인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직 자신을 사랑만 해 주시는 상상 속의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입맛대로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종교와 모든 기독교인들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감정과 죄가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 믿고 있을 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고전 8장5~6)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

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사 26장13)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딤전 4장1~2)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귀신들과 신접하는 이치를 마치 성령을 받은 것처럼 가르칩니다. 귀신을 부르는 주술과 복술이 방언이 되고, 길흉과 점술이 예언이라고 불리며, 온갖 귀신들의 이적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포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같이 세상과 물질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오직 자신만의 세속적인 이상과 희망과 행복과 축복을 바라는 기도일 뿐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같이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신이 나타납니다. 물질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신이 나타납니다. 정욕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정욕의 신이 나타나고, 육정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육정의 신이 하나님인 양, 그리스도인 양, 천사인 양 가장하고 위장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고전 8장5~6)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사 26장13)

8.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신들의 실체

하나님을 믿든,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종교를 믿든, 혹은 종교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든, 세상과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세상과 육에 속한 신들에게 이끌린 바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신에게,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신들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신의 세계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섭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 안에서 사단과 귀신들의 역사 가운데 종교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신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세상과 육에 속한 자기만의 축복과 행복과 성공과 안위만을 좇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똑같이 사단과 귀신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육의 신들에게 세상을 내어주신 근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세상의 신들에 의한 악한 습관과, 육체의 욕구를 좇아 정욕과 욕심을 일으키는 육신의 신들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성령,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과 능력과 은사와 이적은, 실상 사단과 귀신이 100% 역사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은사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성령의 형태는,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과 잡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인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나같이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악한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카톨릭과 기독교 안에서는 귀신들과 신접하는 이치를 마치 성령을 받은 것처럼 가르치고, 귀신을 부르는 주술과 복술을 방언이라 하며, 길흉과 점술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온갖 귀신들의 이적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같이 세상과 더불어 물질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오직 자신만의 세속적 이상과 희망과 행복과 축복만을 바라는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들은 하나같이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정욕을 위한 기도들입니다. (렘 14장11~16)(슥 10장1~3)(겔 21장28~32)(겔 12장21~25)(신 18장9~14)(시 55장19~23)(잠 7장21~22)(애 2장14)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고전 8장5)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렘 10장11)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사 26장13)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장4)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장12)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습 2장11)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고후 4장4)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출 12장12)

세상을 구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신이 역사하고,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신이 역사하며, 정욕을 구하는 자에게는 정욕의 신이 역사합니다. 탐욕을 바라는 자에게는 탐욕의 신이, 육정을 구하는 자에게는 육정의 신이,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신이, 세속의 가정을 구하는 자에게는 가정의 신이, 육신을 좇는 자에게는 육신의 신이, 도덕을 좇는 자에게는 도덕의 신이, 감동만을 좇는 자에게는 감동의 신이, 설교만 좇는 자에게는 설교의 신이, 말만 앞세우는 자에게는 말의 신이, 이론만 앞세우는 자에게는 이론의 신이 역사합니다.

또한 종교를 좇는 자에게는 종교의 신이, 세속을 좇는 자에게는 세속의 신이, 세속의 희망을 좇는 자에게는 세속의 희망의 신이, 애정을 구하는 자에게는 애정의 신이, 습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습관의 신이, 세상의 행복을 원하는 자에게는 세상 행복의 신이 역사합니다. 과학의 신, 재능의 신, 문명의 신, 시간의 신, 태양신, 토속의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토속의 신이 역사합니다.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하나님인 양, 그리스도인 양, 천사인 양 가장하고 위장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담하게도 세상에는 정말로 신들의 실체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지와 무식 가운데 머무는 종교인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평생 자신의 축복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악한 습관의 노예가 되어 회개조차 이루지 못합니다. 평생 말로만 가르치는 믿음이기에, 사랑을 좇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 다른 사람의 경험과 교훈만 좇아 감동을 받는 믿음이기에,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히 12장16~17)

무슨 종교를 믿든, 무슨 신을 섬기든, 모든 인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배당된 모든 신들에 의해 이끌린 바 됩니다. 그 가운데 첫째로, 육체로 난 인간들은 인간 안에 있는 일곱 가지 감정의 신들에 의해 이끌리고, 미혹되고,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감정을 지니지 않는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감정은 자신도 모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며, 육체의 악한 욕심을 좇을 수밖에 없는 본질에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자기 기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

에 따라,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일곱 가지 감정을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감정은 지옥에서는 사형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롬 1장23~32)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는 누구나가 일곱 가지 감정의 신들이 역사합니다 시기하는 자들에게는 시기의 신이 질투하는 자들에게는 질투의 신이,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의 신이 정욕을 품는 자는 정욕의 신이 분내는 자는 분의 신이 거짓을 앞세운 자는 거짓의 신이 미워하는 자는 미움의 신이 역사합니다 진정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곱 가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궤휼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잠 26장24~25)

죽을 때까지 죄만 반복하도록 인도하는 말의 감동과 교훈을 따라, 각성과 다짐과 결심을 수천 번, 수만 번 한다 해도 거듭날 수 없고 죄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감정을 선동하여 감동을 일으키는 인간의 설교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그것이 성도들을 속이고 사기 치는 마귀의 역사라면 결국 사람의 교훈과 감동일 뿐입니다. 이러한 감동만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그 마음에 가증한 일곱 가지 감정을 지닌 자들이므로 그들을 좇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악한 일곱 가지 감정을 지닌 자들은 육체의 본질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에, 평생 각성과 다짐과 결심만 일으키는 사람의 교훈과 감동으로 사람들을 이끌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평생 죄만 반복하게 만들고,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사람의 교훈과 감동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설교를 좇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마 12장45)(눅 11장26)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막 16장9)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신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감동과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 정욕과 욕심을 좇아난 일곱 가지 감정을 가진 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얻도록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아닌 일곱 가지 감정의 신, 즉 일곱 귀신이 역사하는 자들이기에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믿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오직 자기의 말과 주장만 앞세운 감동의 설교를 좇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왕상 22장21~22)(대하 18장20~22)

죄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평생을 말로만 가르치는 자들의 설교는 절대로 이 일곱 가지 감정의 신을 없애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세

상의 신들과 세상의 영들에 의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귀신들에게 이끌린 바 되는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딤전 4장1~2)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약 1장22) 그러므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결심을 많이 한다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자주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과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리는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위로를 위한 아첨이 아닙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며,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라고 했습니다.(시 55장19~22)

말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설교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죄를 드러내지 않고, 회개로 인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증거되지 못한다면, 그 설교의 부드러움은 결국 심판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칼이 됩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음부

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잠언 5장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달콤한 설교 속에 나타나는 감동의 은혜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녹이는 말이 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과 입술의 호리는 말로 사람을 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 끝은 소가 푸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 7장21~22)

바울도 좋은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롬 16장18)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부드러움과 달콤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설교가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을 얻도록 인도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좇아 선과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며,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렘 23장16)

말씀 중심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과 이론만 앞세운 설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를 얻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구절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이론만 앞세우는 자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교훈과 감동에서 난 간접적인

교훈과 감동으로 사람들을 이끌 뿐이며, 실제로 자신이 체휼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의 진리를 얻지 못하도록 인도합니다.(벧후 2장1~3)

물론 종교들의 교훈과 감동이 세속을 살아가는 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역사하는 신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난 신의 성품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설교의 교훈과 감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 육신적인 성도들, 곧 세상적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 삶을 과다하게 부풀려 의미를 부여하고,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는 성도들인 것처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과 육에 속한 까닭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까닭에 점점 믿음들의 양심이 화인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악용하여 온갖 자기 철학, 자기 학문, 자기 도덕, 자기 주장을 합리화한다면, 성경은 그들에게 명분과 제목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과 육에 속한 사람의 교훈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히 13장9) 바울 또한 다른 복음을 경고했습니다.(고후 11장4)

말만 앞세운 설교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갈 1장6~7)

바른 말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을 좇지 말라고 경고합니다.(딤전 6장3~5)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며,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딤후 4장2~4)

죄를 반복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설교는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듣기만 하는 세월 속에서 오히려 죄만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 곧 영이 점점 황폐해지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점점 갈급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만 커져갑니다. 이것이 지치고 찌들어가는 신앙의 실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23장30~32)(렘 23장33~40)(겔 13장2~1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

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렘 27장15)(롬 2장17~24)(살후 2장3~12)(사 66장1~4)(겔 14장4~11)(겔 14장3~6)(고후 11장13~16)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신의 능력이요 죄를 없애는 강력입니다 평생을 죄만 반복하는 다른 사람의 교훈과 감동을 앞세운 인간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신의 능력이 역사하여 죄를 해방시켜 주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장16~17)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예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 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엡 3장5~7)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장28~29)

.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롬 1장9~12)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전 1장 6~8)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골 1장10~14)**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딛 2장7~14)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골 2장2~9)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장17~23)

9. 평생을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악한 마귀의 습관을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1 3장8)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히 2장14~15)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 10장19)

사단은 모든 인간 안에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본질을 통해 악한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복하고 기도해도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 악한 습관을 스스로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인간의 악한 습관으로 인해 반복되는 죄는 결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반성하고 깨달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거듭날 수도,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말만 앞세운 설교 속에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신앙, 평생을 말로만 가르치고 평생을 듣기만 하는 신앙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악한 습관 속에서는 결국 죄만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감동과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는 진리도 아니며, 참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도 하나님의 은혜도 아닙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정욕과 욕심이 생겨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소망은 사람을 거듭남의 회개와 정결함으로 이끕니다.(롬 5장3~5)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 2장2~9)(골 2장20~23)(갈 4장9~11)

그러므로 우리는 공교한 도덕적 말과 철학,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가르치는 설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재주를 좇지 않습니다. 사람의 철학을 좇지 않습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말과 이론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철학과 이론과 말재주로 혼잡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교만에서 나온 누룩입니다.(고후 2장14~17)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소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롬5장3~5)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과 양육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머리와 지능으로 말과 이론으로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한계와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신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신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이상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골 2장2~9)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

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딤전 4장6)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몬1장 4~6)

신의 사랑이 부은바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하시며 주관하시며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머리와 지능으로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방식이 아닌 신의 진리는 사랑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신의 능력의 진리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장15~24)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

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딛 2장7~14)

.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롬 1장9~12)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전 1장 6~8)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함에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한계로 뛰어넘지 못하는 인간의 악한 습관을 죽이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장16~17)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2장 4~14)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

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골 1장10~14)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벧전 1장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장5)

하나님의 나라.(진리)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 4장20)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1 3장21~24)

10. 기독교와 카톨릭의 예배와 모든 종교들의 예배

오늘날 우리는 평생 예배를 거룩한 것이라고 배워 왔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십일조와 헌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 3장8)

교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라고 답변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무서운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앞세우면서 십일조와 헌물을 통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나누어주어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함에 아름다운 나눔의 제사가 도둑질을 위한 말만 앞세운 설교의 감동만 앞세운 예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십일조와 헌물의 근본적인 목적은 첫째는 목자와 직분자들을 위한 식량입니다 둘째는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나누어주어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함에 안식일도 예배도 목자도 존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들의 예배는 사실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베풀고 나누어주어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는 사랑을 위한 십일조와 헌물의 십분의 일을 제외한 십 분의 구를 나누어주기는커녕 전도라는 명분으로 건축의 교회를 위한 종교들의 확장과 사리사욕에만 쓰여 왔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과 로마교와 기독교의 전통과 관행과 예배의 뿌리는 창세에서부터 시작해 왕과 권력들이 절대 복종과 절대 권력을 위한 종교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통치의 수단에서 만들어진 종교적 관행과 사상과 예배의 의식입니다 말과 명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경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오늘날 로마교에 이어 기독교의 예배와 예식은 시작 자체가 순수하지 않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종교요 교회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교와 기독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만드신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인은 인간의 악한 한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만 반복하는 신앙인들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한계는 곧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에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말씀처럼 겨자씨만 한 믿음의 능력과 열매와 증거가 2000년이 넘도록 로마교와 기독교 안에서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한 명도 죄에서 해방되어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습관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요 기독교인과 로마인은 과거 유대교인처럼 종교인에 불과할 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마 17장20)(요 15장7)

인류의 모든 종교는 왕가나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힌두교도 불교도 로마교도 회교도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왕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견되고 있는 인류의 대다수의 문명의 유적지에서 공통적으로 신을 섬기는 제단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왕들의 대다수가 종교성이 좋아서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종교를 악용하여 자신이 신의 대리자가 되거나 신이 되는 신격화로 인하여 절대 복종과 절대 권력이라는 종교의 특수성을 악용해 종교 자체를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해 왔음을 충분히 암시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주를 만들어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와 평화로 만들어지고 전파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막 7장6~9)

군사 정권과 군사 정변으로 인한 불안정한 통치를 벗어나, 신을 명분으로 왕을 신격화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종교는 백성을 강력하게 통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의 특수성, 곧 신의 이름 앞에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구조를 악용하여 종교 통치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인 이집트 문명, 마야 문명, 황하 문명, 그리스 문명, 그리고 최근 발견되고 있는 여러 문명의 유적지와 유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신을 섬기는 종교 의식에 따른 제단과 건축물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힌두교와 불교와 로마교와 회교도가 공통적으로 왕가와 권력의 중심에서 나온 것과도 일치합니다. 종교는 처음부터 순수한 진리의 이름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왕권과 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도둑질의 예배도 그 뿌리는 유대교를 거쳐, 유대교를 모방한 로마교의 도둑질을 위한 예배와 전통과 관행을 그대로 이어받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진화하여 오늘날 개신교, 곧 기독교의 도둑질의 예배와 사상과 전통과 관행이 된 것입니다. (렘 7장4~11)(사 1장11~17)(삼상 15장22~23)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마 21장13)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라고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책망이 나옵니다.(막 11장17, 눅 19장46)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

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들어와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강도의 굴혈로 보이느냐고 하셨습니다.(렘 7장4~11)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일조와 헌물을 왜 만드셨는가를 이제는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로마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통하여 진정 가난한 자와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나누어주어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온 땅에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인가를 명확하게 따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십일조와 헌물을 통해 먹이고 보살피고 나누어주지 않아 서로 위하고 아끼고 섬기는 사랑 대신 말로만 떠드는 설교의 교훈과 감동만 가르친다면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물이 아니라 종교와 목자들의 권력과 탐욕을 위한 재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일조와 헌물은 목자와 봉사자들을 위한 몫으로 쓰였고, 또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데 쓰였습니다.(느 10장36~39, 민 18장25~30, 신 26장12~14, 신 14장28~29)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객과 궁핍한 자를 보살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설교가 아니라 실제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십일조의 10분의 9)(창 14장17~24)(신 26장12~14)(신 14장28~29)(행 2장44~47)(행 4장32~35)(신 15장

10~11)(고후 9장8~9)(시 112장6~9)(잠 14장31)(사 1장11~17)(롬 13장8~10)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행 2장44~47)

또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행 4장32~35)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제사만 좇는 자들은 죄로 징벌하신다는 말씀의 뜻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 하였으리라.**(마 12장7)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 9장13)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 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장6)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

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막 12장33)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히 13장15~16) (시 51장16~17) (고후 9장8~9)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사 9장15~17)

도둑질을 위한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인 양 그리스도인 양 가장한 100% 사단과 귀신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예배들이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딤전 4장1~2)

11.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기독교와 로마교 예배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고전 8장5~6)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사 26장13)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 3장8)(마 7장13~20)(마 12장 33~35)(계3장3)(마13장 30~40)

여러분, 오늘날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진정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세상과 물질과 축복과 자기 욕망을 구하는 것인가?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

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세상것을 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물질과 축복과 가정과 건강과 만사형통만을 구합니다 그럴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세상을 구하면 세상의 영이 하나님처럼 역사합니다. 물질을 구하면 물질의 신이 그리스도인 양 역사합니다. 축복을 구하면 축복의 신이 하나님인 양 역사합니다. 육정을 구하면 육정의 신이 성공을 구하면 성공의 신이 가정을 구하면 가정의 신이 건강을 구하면 건강의 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로마교인들의 가장 무서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자기 욕망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속 우상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품은 우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수효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습관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겔 14장3~6)

또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시고, 백성 가운데서 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겔 14장5~11) 이 말씀은 매우 두렵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에게 간다고 다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의 수효대로 응답하시고, 그 마음먹은 대로 그를 잡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겔 14장3~6)

성경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고전 8장5) 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고후 4장4) 이제는 죄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같이 세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신이, 물질을 구하는 자는 물질의 신이, 정욕을 구하는 자들은 정욕의 신, 탐욕을 바라는 자는 탐욕의 신이, 육신을 구하는 자는 육신의 신이, 축복을 구하는 자는 축복의 신이, 세속의 가정을 구하는 자는 가정의 신이, 도덕을 좇는 자는 도덕의 신, 감동을 좇는 자는 감동의 신이, 설교를 좇는 자는 설교의 신이, 말만 앞세운 자는 말의 신이, 이론만 앞세운 자들에게 이론의 신이, 지식을 앞세운 자는 지식의 신이, 사람의 지혜를 위하는 자는 지혜의 신이, 지능을 앞세운 자는 지능의 신, 생각을 앞세우는 자는 생각의 신이, 혈기를 좇는 자는 혈기의 신이, 자신의 의욕만 앞세우는 자는 의욕의 신이, 자신의 자긍을 앞세우는 자는 자긍의 신이, 자신의 의지를 앞세운 자는 의지의 신이,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자는 주장의 신이, 종교

를 좇는 자는 종교의 신이, 애정을 구하는 자는 애정의 신이, 또한 과학의 신, 재능의 신, 문명의 신, 시간의 신, 태양신 토속의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토속의 신 등, 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이 하나님인 양 혹은 그리스도인 양 혹은 천사인 양 가장하고 위장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참담하게도 이를 아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없는 무지와 무식의 종교인들뿐입니다.(고전 8장5, 고후 4장4)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인 양 그리스도인 양 가장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줄을 아예 모르는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평생을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의 하나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예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장14~24)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호 2장11~13)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베풀고 나누어주어 서로 위하고 아끼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알리기에 위함에 만들어 놓으신 십일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예배로 인하여 귀신이 역사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기와 안식일까지 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강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의 쓸데 없음 같이 되리라.** (렘 13장10~11)(호 11장2)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고전 12장1~2)(렘 16장11~1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사 66장1~4)(렘 16장

11~13)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계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겔 14장4~11)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

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겔 14장3~6)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별도로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세상과 육에 속한 정욕과 피조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당신의 죄가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는 자신이 사단의 사자요 마귀임을 이미 성경 말씀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짖어 우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롬 1장21~25)

성경말씀은 마음으로 품은 세상과 육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우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건축의 교회도 제단도 우상입니다.(마 23장~19)(렘 7장4~11)(마 7장15~18)(슥 5장4)(눅 21장5~6)(마 21장13. 막 11장17. 눅 19장46)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줄로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

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피조물을 좇아난 정욕의 삶을 살기에 100%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조차도 분별하지 못한 목사들이 가르칩니다.

집도 땅도 돈도 금도 은도 세상 것도 육의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우상입니다.(요1 2장15~17)(약 4장3~4)(전 11장9~10)(사 5장8)(시 17장14) 우상을 좇아난 정욕을 위해 믿는 믿음은 죽을 때까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요1 3장5~10)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장13~16)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반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 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장3~12)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장9~12) (잠 30장12~14)

기독교인이 확신하는 구원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기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증거도 열매도 없는 거짓 구원을 주장할 것인지 혈기와 의욕의 신앙들이여 십자가의 사랑을 좇아난 희생을 회피하고 오직 주장과 의욕과 확신으로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희생과 고난과 수고는 회피한 채 말만 앞세운 설교 속에 구원이 사랑의 하나님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하지 않았는지? 이제심판이 우리의 눈앞에 이미 있나니 회개하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따르게 만드는 것들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역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신이 하나님처럼 역사합니다.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신이 그리스도처럼 역사합니다.
정욕을 구하는 자에게는 정욕의 신이 하나님처럼 역사합니다.
탐욕을 바라는 자에게는 탐욕의 신이 그리스도처럼 역사합니다.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신이 하나님처럼 역사합니다.
가정의 행복만 구하는 자에게는 가정의 신이 그리스도처럼 역사합니다.
자신만을 의지한 사람은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절대화가 되고 신격화 됩니다.
지식과 이론과 감동과 설교와 말만 좇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신처럼 높아집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면 이것은 자신이 절대화되고 자신이 신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속으로 품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시 82장5~7)

여기서 우상의 핵심이 나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과 축복과 자기 행복을 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건물만 우상이 아닙니다. 종교도 우상이 됩니다. 교회도 우상이 됩니다. 목자도 우상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도 우상이 됩니다.(겔 14장3~6) 세상 것도

우상이 됩니다.(요1 2장15~16)(약 4장3~4)(고후 7장10)
물질도 우상이 됩니다.(막 10장23~25)(마 6장19~25)
축복도 우상이 됩니다.(딤전 6장9~10)(약 5장1~3)(잠 23장4)
금 은도 돈도 모두 우상이 됩니다.(약 5장1~3)
세상 산업도 우상이 됩니다.(시 17장14)
가옥과 전토도 바라면 우상이 됩니다.(사 5장8)
도둑질의 예배는 우상이 됩니다.(렘7장4~11)
젊은 날의 자신의 꿈과 이상도 우상이 됩니다.(전 11장9~10)

가정도, 건강도, 성공도, 감동도, 지식도, 설교도, 자기주장도,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 그리스도의 소망을 좇지 않으면 다 우상이 됩니다. 심판으로 가는 육신의 믿음들은 세상 근심을 구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애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만 구합니다. 모두가 믿지 않는 세속을 사는 사람들과 같은 세속에 속한 것들이요 우상이 됩니다 기도와 설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가정의 축복과 자기 이상과 자기 평안을 구하는 눈물과 기도일 뿐입니다. 그것은 에서와 같은 믿음입니다.

에서는 축복을 구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히 12장 16~17)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눈물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자기의 축복과 만사형통을 위한 눈물인지, 그리스도의 회개를 이루는

눈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 가정과 건강과 만사형통만을 위한 눈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이루어질수 없는 에서와 같은 육신의 믿음입니다 도둑질을 위한 기독교와 로마교의 예배는 세상의 영과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00년이 넘도록 겨자씨만 한 믿음의 능력도 열매도 증거도 나타나지 않으며 평생을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딤전 4장1~2)

귀신의 가르침은 종교와 교회 안에 더 나타납니다 창세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대적자와 원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과거의 유대교인들과 같은 로마교인과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귀신의 가르침은 우상 숭배와 도둑질의 예배만 앞세운 말의 설교 속에 미혹의 신이 역사합니다 예배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분량만큼 도둑질을 위한 도둑의 신이 역사합니다 축복과 가정과 건강과 만사형통이라는 명분 아래에도 사단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성경을 앞세워도 성도들을 세상 정욕과 탐심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도, 그 설교가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며,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고후 11장13~15)

겉으로 거룩해 보인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자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은혜로워 보여도,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 설교가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는가? 그 예배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가? 그 가르침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의의 열매로 이끄는가? 아니면 가정과 축복과 성공을 앞세워 세상에 속한 성도들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합리화하는가? 사단의 일꾼도 의의 일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고후 11장13~15)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고, 이 세상의 신은 마음을 혼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전 8장5, 고후 4장4)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 근심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영은 회개와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요1 3장14)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요3 1장11)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약 4장16~17)

고린도후서 7장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의 예배는 절대로 나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를 받도록 하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베풀고 보살피고 서로 위하고 아끼고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끄는가? 이것이 예배를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22~24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갈 5장 22~24)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장3~12)

죄를 반복하는 악한 습관을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진리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에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는 기독교

인들의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만드시는 사랑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장16~1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1 4장7~11)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1 4장16~17)(롬 13장8~10)

자신의 십자가를 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평생을 말로만 가르치고 평생을 듣기만 하는 신앙들은 십자가의 사랑과 원수가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멸시한 대적의 믿음입니다.

12. 기독교의 가짜 구원과 가짜 믿음과 가짜 목자 가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무겁고도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이 하나님 앞에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어떤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참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거듭난 자인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구원의 대상인가? 겨자씨만 한 믿음의 열매도 없고, 믿음의 증거도 없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성경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을 진지하게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은 말의 확신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거짓된 구원과 거짓된 믿음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 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장9~12)

악한 자의 임함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살후 2장3~12)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서만도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세상과 육에 속한 정욕과 욕심을 좇아난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정욕을 좇는 자는 절대로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세상 정욕과 죄를 덮어 주는 종교와 교회와 목사를 좋아합니다 반복되는 죄 앞에 회개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만 반복하는 자신의 축복과 이상과 만사형통만을 바라는 자들의 회개는 오히려 자신의 죄 앞에 죄를 점점 경히 여기고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더 나아가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한 신앙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신앙들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

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 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7장4~11)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계 2장9)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계 3장9)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사역자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장13~15)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잠 30장12~14)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살후 2장9~10)

도둑질의 예배로 인하여 먹이고 베풀고 보살피고 서로 위하고 아끼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알려야 할 목자들이 종교를 명분으로 도둑질을 위한 도둑질의 예배를 합리화하기 위함에 온갖 아첨과 아부와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케 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신)을 받은 자이며 지존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으나 죄인 같이 죽고 심판을 갈 목자나 직분자 같이 엎더지리라는 말씀은 지금의 모든 기독교인과 로마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 무각 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 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 같이 엎더지리로다**(시 82장3~7)

13. 사단의 실체

많은 사람들은 사단을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혹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깊이 보면, 사단의 실체는 육체를 지닌 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몸체가 육체가 된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육체 된 열매, 즉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처럼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통하여 사망과 죄가 인간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는 영생의 몸체를 지닌 하나님의 천사들이 배반하여 인간처럼 육체가 되어 사단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고전 15장40)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천사도 범죄하여 지옥에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뜻은 천사들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의 두로 왕도(겔 28장1~19) 아담도 천사들도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천사들이 범죄하여 사단들이 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영원한 천국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벧후 2장4)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유 1장6)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계 9장14~15)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들에게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시험하며 고난과 재앙과 저주와 병과 어둠과 죄와 사망을 내리는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단들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욥 1장6~12)

사단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저주와 병과 죽음까지도 권세를 준 것입니다 사단은 천사들이 잘 하지 않는 악한 일들을 합니다 어둠과 재앙과 저주와 병과 죄와 죽음의 일들을 담당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욥 2장 1~10)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슥 3장1~9)

이 성경 말씀처럼 사단들도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천사와 같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인 양 혹은 그리스도인 양 혹은 천사인 양 미혹하는 미혹의 신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 사람들을 속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난 신의 능력을 얻도록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말만 앞세운 설교의 교훈과 감동으로 평생을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로 만드는 거짓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대하 18장20~22) (왕상 22장21~22)

하늘에나 땅이나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단들의 역사가 주관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영입니다 또한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말의 영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고전 8장5~6)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사 26장13)

사단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인 양 그리스도인 양 천사인 양 가장하여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사단은 대놓고 사단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인 양 그리스도인 양 하나님인 양 가장합니다. 선과 의의 일꾼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인 양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기준하고 분별하지 못하기에 평생을 설교의 감동에 속아 죄만 반복하면서 평생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그리스도의 열매도 사랑의 증거도 없는 자신을 성령을 받았다고 자긍하는 교만은 양심(영)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사역자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장13~15)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궤휼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잠 26장24~2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고전 8장5~6)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렘 10장11)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습 2장11)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사 26장13)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장4)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2장12)

세상을 구하는 세상의 신이, 물질을 구하는 자는 물질의 신이, 정욕을 구하는 자들은 정욕의 신, 탐욕을 바라는 자는 탐욕의 신이, 육정을 구하는 자는 육정

의 신이, 축복을 구하자는 축복의 신이, 세속의 가정을 구하는 자는 가정의 신이, 평강을 위한 자는 평강의 신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신이, 도덕을 좇는 자는 도덕의 신, 감동만을 좇는 자는 감동의 신이, 설교만 좇는 자는 설교의 신이, 거짓말을 하는 자는 거짓의 신이, 말만 앞세운 자는 말의 신이, 이론만 앞세운 자들에게 이론의 신이, 지식을 앞세운 자는 지식의 신이, 사람의 지혜를 좇는 자는 지혜의 신이, 지능을 앞세운 자는 지능의 신, 생각을 앞세우는 자는 생각의 신이, 혈기를 좇는 자는 혈기의 신이, 자신의 의욕만 앞세우는 자는 의욕의 신이, 자신의 자긍을 앞세우는 자는 자긍의 신이, 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이 하나님인 양 혹은 그리스도인 양 혹은 천사인 양 가장하고 위장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세상사의 권한을 부여 받은 세상의 영입니다 이 처럼 모든 목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사단의 능력과 세상의 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 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롬 1장28~32)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과 분냄과 거짓과 정욕의 일곱 가지 감정을 반복하

는 자는 사랑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시기하는 자는 시기의 신이, 질투하는 자는 질투의 신이, 교만한 자는 교만의 신, 분내는 자는 분의 신이, 거짓된 자는 거짓의 신이, 미워하는 자는 미움의 신이 정욕을 좇는 자는 정욕의 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마에게만 존재되는 일곱 감정의 일곱 귀신이 아닙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인간들에게 존재되는 신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일곱가지 감정의 귀신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마 12장45)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눅 11장26)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막 16장9)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궤휼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잠 26장24~25)

죄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평생을 말로만 가르치는 자들의 설교는 절대로 이 일곱 가지 감정의 신을 없애지 못합니다 또한 본인도 이 일곱 가지 감정을 좇아 끊임없이 죄만 반복하고 있는 죄의 종이요 마귀요 사단의 사자이면서 말만 앞세운 설교로 모든 성도들을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악한 습관

과 죄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죄만 반복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실체도 모르는 무지와 인간의 육체가 사단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무식이 가르치고 배우는 세상이기에 심판이 목전에 왔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소경들이 소경을 가르치는 격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영생도 사단도 모르는 무지들의 가르침으로 심판과 멸망만 당할 뿐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살후 2장9~10)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케 할 것만 보았도다(애 2장14)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효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호 4장6~10)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사 9장 15~1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 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마 15장7~14)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눅 6장39~45)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요1 5장18~19)

성경을 말한다고 다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롭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은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과 분냄과 거짓과 정욕의 일곱 가지 감정의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과 행실과 열매가 바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말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인 양 그리스도인 양 가장하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반복되는 죄와 감정의 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습니다. 그 영만이 사람을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건져 참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옵니다 또한 성도들을 악과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벧전 4장1~2)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예하였더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렘 23장21~22)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약 5장19~20)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 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 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요1 5장18~20)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장21~23)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장

8)

죄를 반복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고 정욕과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삶 속을 부정해야만이 우리는 반복되는 죄 앞에 회개하여 거듭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좇아서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1 3장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 8장34)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약 2장10~11)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 12장35)

14. 인간의 본질과 실체

여러분 여러분은 왜 죄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쯤은 누구나 고민해 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자신의 실체도 모르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실체는 사단처럼 순종치 않는 몸체인 육체를 지닌 사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육체를 지닌 사단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인간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바로 육체를 통해 우리에게 죄와 악과 어둠과 거짓과 사단을 배우도록 하심입니다 또한 죄를 통해 겸손의 보화를 주시기 위하심이요 또 우리는 영(양심)을 통해 선과 의와 빛과 참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는 온전치 못한 우리를 온전케 완전케 견고케 하심의 공의와 정의와 의의와 신의를 좇아난 하나님의 사랑의 공법을 완성하기 위함에 필요한 이상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12장7)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

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 8장44)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욥 1장21)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롬 11장3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엡 2장2~3)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장5)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요1 3장8)

육신을 좇아서 인간이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은 만족 없는 욕구와 정욕을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몸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는 몸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장12~14)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장11~12)(롬 7장5~6) (고전 1장17~21)

여러분 심판의 날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 앞에 어느 누구에게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좇아난 삶으로 인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거듭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심판의 날에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자는 이 성경 말씀으로 온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 12장17~21)(사 42장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말 3장1~3)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사 19장19~20)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행 7장37)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장3)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계 10장7~11장3)

심판의 날이라 심판이 온 땅에 뿌려지기 시작하였나니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한 종교인들이여 너희의 죄가 믿지 않는 세상인들보다 크나니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교처럼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거듭남의 회개요 죄에서 해방될 수 사랑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찐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사 5장18~19)

말의 감동과 교훈만 가르치는 거짓된 자들이 심판 날에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속속히 이루어 자신들에게 보게 할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속히 임하게 하여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그들의 예언

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상기하십시오 그들의 말에 속아 심판의 날에 기절하고 절규하고 울부짖는 믿음들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심중하게 보십시오 당신이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중심한 올바른 기준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의 내용만 믿으십시오 자신의 목숨과 심판이 걸린 심중한 문제이니 심히 경각하고 심히 고민하고 심중히 기도하십시오 심판의 날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눅 21장26~27)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장30)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암 8장9~10)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장7~9)(사 8장20~22)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미 3장3~6)

심판이 온 땅에 전파됩니다(마 12장17~21)

천국복음이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마 24장14) (막 13장10)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창세에서부터 이르러 하늘의 모든 비밀이 열립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장7)

여러분이 수십 년을 믿으며 수천 수만 번을 들은 설교 안에서 단 한 가지도 보고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말씀대로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로 보고 듣지 못할 신의 지혜입니다 정말로 경이롭고 정말로 신기하고 정말로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지능으로 배우고 익히는 상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신의 지혜와 신의 지식과 신의 이상과 신의 영역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죄에서 해방되는 능력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견고하도록 인도하는 신의 강력입니다 사람의 학문이나 이론이나 지식으로 난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은바 되어 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랑의 진리입니다 머리와 지능으로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신의 이상이요 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빌 3장8~9)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2장 4~14)(요 14장26~27)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사 40장13~14)(요1 2장27) (욥 13장1)

강의 내용의 하나님의 진리는 엄청날 정도로 광활합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을 다 들을 수 없는 분량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신 모든 질문이 바닥이 날 정도로 답변을 얻습니다 강의는 성도들의 질문

속에 더 깊고 더 신기하고 더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알고자 하는 모든 질문 다 싸가지고 오십시오 인간의 질문의 한계가 바닥에 이를 만큼의 광활한 진리입니다 통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책이 생명과 구원을 위한 말씀임을 세상에 알려 주십시오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상급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리 관계로 많은 분들을 한 번에 다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의는 신청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다음 카페에 들어가 가입하고 이 카페에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연락처: 010-8680-1440, 010-4655-3735, 010-3434-7144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4321qaz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메일 주소 : nazirite90@gmail.com